지혜·자비의 등, 국회에 불 밝히다

국회 정각회, 4월 16일 봉축 점등식 봉행

진우 스님 등 종단 지도자 참석
이헌승 회장 "삶의 변화 이루자"
국보 충주 중앙탑 재현해 제작
산불 피해 지원금 300만원 전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회 정각회는 4월 16일 국회 중앙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점등식 직후 기념촬영 모습.

국회의사당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지혜와 자비의 등이 불을 밝혔다.

국회 정각회(회장 이헌승)는 4월 16일 국회 중앙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덕수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능원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록경 정사(총지종 통리원장)·만청 스님(대각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융종 총무원장) 등 종단협 소속 종단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정각회에서는 이헌승 정각회장과 주호영 명예회장, 서영교 고문, 김영배 수석부회장, 김병주 부회장, 이수진 수석 간사, 김석기·이용성·김재원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국회 중앙광장을 밝힌 봉축탑은 국보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을 재현해 제작됐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신라 제38대 원성왕 때 통일신라 전국토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 같은 보폭으로 걸어 만난 국토의 중앙지점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조성 설화처럼 국회 봉축탑에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중심을 잡아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점등식에서 불교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과 국회의원들은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올해 봉축표어인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을 힘차게 외쳤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국회 역시 정쟁으로 점철된 현실 속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한 걸음씩 양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설하고 있다"면서 "이 가르침처럼 우리 국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애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식 치사 이후 진우 스님은 소참법문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선명상 수행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고 정무에 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점등사를 통해 "오백년을 이어온 연등의 전통은, 서로의 마음을 밝히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실천의 상징"이라며 "여러 정치적 혼란 속에서 오늘 함께 밝히는 이 연등 불빛이, 대한민국을 다시 밝히고, 우리 모두의 삶에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을 축하하고 화합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각회 회원들은 진우 스님에게 산불 피해 복구 기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피해 사찰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했다.

"연잎 꼬고 붙이며 연등 함께 밝히자"

조계종종무원조합 '1인 1연등 만들기' 현장

기금 모연해 산불 피해 사찰 지원
4월 25일 총무원 로비서 점등법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 한켠이 유난히 분주해졌다. 종무원 몇몇이 모여 앉아 연잎을 꼬고, 골조에 연꽃을 붙이는 손길이 바쁘게 오간다. 조용했던 사무실이 어느새 작은 연등 작업장으로 변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열흘 앞둔 4월 16일, 조계종종무원조합(조합장 김추연·기획실 공보팀장)이 연등 만들기에 한창이다. 조합에 소속된 300여 종무원은 각자 소속된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1인 1연등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연등을 만들어 온 종무원들은 능숙하게 작업을 이어갔고, 올해 처음 참여한 신입 종무원들은 옆자리 동료들을 따라 열심이다. "옛날에는 연잎 끝을 실로 감기도 했는데…" "풀은 적당히 발라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등 소소한 대화는 덤이다.

정성껏 만든 연등에는 저마다의 간절한 발원을 적은 꼬리표도 달린다. 교육부는 '출가자 등록 200명 돌파'를, 기획실은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가족 건강' '좋은 인연 만나기' '올해 안에 결혼하기'처럼 개인적 바람도 함께 담았다.

종무원조합은 매년 연등 만들기를 통해 자비나눔 기금도 조성한다. 특히 올해 기금은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영남 지역 사찰 복구 지원에 사용된다. 조합은 완성된 연등을 조계종 총무원 1층 로비에 설치하고, 4월 25일 점등법회를 통해 불을 밝힐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종무원들이 4월 16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꽃등을 만들고 있다.

경찰 불자들 "국민 신뢰 받고 평화로운 세상" 염원

서울경찰청, 4월 15일 봉축법회
포돌이 · 포순이 장엄등 불 밝혀


서울경찰청 봉축대법회 참석대중이 포돌이 포순이 장엄등에 점등을 하고 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과 원칙을 척도 삼아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부처님의 큰 뜻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발원문 中)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경찰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와 국민 화합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경찰청 경승실과 불교회는 4월 15일 서울 청사 대강당에서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시민들의 가까운 이웃으로 늘 든든한 의지처가 되는 경찰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시민들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경찰 여러분은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연등처럼 소중한 존재"라며 "어려운 국가적 혼란 속에서 흔들림 없이 법과 질서를 지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경찰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느끼고 있다"고 치하했다.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원명 스님은 "경찰 불자들이 제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줬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사회가 위기를 겪는 동안 경찰이 아니었다면 국민도 마음 편히 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일선에서 가족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찰 불자들이야말로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자"라고 격려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이라는 올해 봉축 표어처럼 국민의 마음에 자비와 평안히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경찰 포교에 진력한 스님과 경찰 불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법회가 끝난 뒤 참석대중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포돌이·포순이 장엄등에 불을 밝히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널리 퍼지길 염원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봉축 지원금·도서 보시 잇달아

연등회에 5000만원 전달해
학교 등 도서 1500권 기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회 지원금과 도서를 잇달아 보시했다.

진흥원은 4월 10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한구 이사장은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에서 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정신을 함께 나눠야 할 때임을 절감한다"며 "온 국민이 수행과 명상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찾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기를 기원한다"고 봉축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4월 14일 '젊은 불교 활성화 및 불교계 출판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학원 불교 동아리와 전국 병원법당에 불교계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수 불서 1500여 권을 전달했다. 130여 곳에 전한 불서들은 도서출판 민족사, 불광출판사, 설법연구원(솔바람), 운주사, 조계종출판사에서 발행한 10종의 불서(만화, 단행본)들이다.

한편, 진흥원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한 불서는 총 2만 4100여 권이며, 불교 출판사 지원 금액은 2억 2000만여 원에 이른다.

신중일 기자

